

운봉-인월 구간

■ 코스 지도

람천을 따라 지리산서북고원을 가로지르는 역사문화의 길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운봉-인월 코스 소개	
2	바래봉	바래봉 철쭉/겨울 눈꽃	생태
3	운봉읍 사거리	옛 운성현/운봉장/만석꾼 박희옥	민속자료/문화재
4	서림공원	석장승, 김개남과 일목장군	민속자료
5	신기마을	초봉의 유래와 마을 이야기/운악정	민속자료
6	람천	운봉의 젓줄/자연하천의 특성/하마정	생태
7	비전마을	조선개국과 황산대첩비/군화리/화수리	역사/민속자료
8	군화마을	서낭당	민속자료
9	자연휴양림	덕두봉/잣 이야기	생태

1. 구간 소개

시골버스의 덜컹이는 소리는 언제나 정겹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촌의 풍경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이번에 걷게 될 운봉과 인월, 인월과 운봉 사이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운봉과 인월 사이엔, 비전마을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이 있다.

운봉마을과 비전마을사이의 길은 지리산 북쪽의 능선들을 바라보며 걷는 운봉의 넓은 들녘과 맑은 람천이 함께 한다.

이와 달리 비전마을과 인월마을을 잇는 길은 통영별로가 지나던 길이다.

조선시대 10대 대로 중 하나였던 통영과 한양을 잇던 통영별로.

그 옛길을, 그 흔적을 걷게 된다.

운봉과 인월의 5개 마을들을 만난다. 한쪽에선 동학농민군의 함성소리와 지축을 울리는 이성계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또 다른 한쪽에선 동편제의 판소리 가락과 왁자지껄한 옛주막의 소리가 들려온다.

물론 이 길을 마음으로 걷고 보고 느낄 때,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것이다.

천천히 돌레길에 첫 발을 내딛는다.

2. 바래봉

멀리 바래봉이 보인다. 승려들의 밥그릇인 바리때를 엮어놓은 모양 같다 해서 바래봉이라고 부른다는데, 사실 언뜻봐서는 감이 오질않는다. 그 대신 말없이 운봉 땅을 굽어보고 있는 바래봉의 모습에서, 손님들을 살갑게 반기는 주인장을 연상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한다. 실제로 바래봉은 사시사철 옷을 바꿔 입어가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그래서 1년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으니 말이다.

먼저 봄이 되면 바래봉은 붉은 철쭉의 꽃망울로 뒤덮인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철쭉의 군락지가 바로 이곳 바래봉이다. 그래서 철쭉이 만개하는 4월말부터 5월까지 바래봉 철쭉축제가 이곳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 내내 바래봉 일대는 꽃불이 난 듯 붉은 철쭉으로 장관을 이룬다. 그런데 다른 지리산의 고봉과 달리 왜 바래봉에만 유독 철쭉이 만발할까. 그 이유가 사뭇 재미있는데, 1970년대 바래봉엔 드넓은 면양목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목장에서 방목하며 키웠던 면양들이 독성이 있는 철쭉만 남겨두고 잡목과 풀들을 모두 먹어버렸다고 한다. 결국 면양목장이 사라진 이후, 바래봉은 자연스럽게 커다란 철쭉의 화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어쩌면 바래봉 철쭉의 향연은 양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만발했던 철쭉의 화원은 여름이 되면 그 빛을 잃고 말지만, 그 대신 바래봉 일대는 상쾌한 허브향과 오색찬란한 허브꽃으로 가득해진다. 바래봉 산자락 아래에, 허브산업 특구로도 지정되어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말부터 9월초까지 남원허브축제가 이곳에서 열리는데, 빼어난 지리산의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광을 연출한다.形形色색의 허브꽃에 둘러싸여 허브향에 취해 여름휴가를 보낸다면 이보다 더한 웰빙이 있을까 싶다.

겨울이 되면 이곳 허브밸리는 새하얀 눈꽃으로 그 옷을 갈아입는데, 해마다 1월이면 바래봉 눈꽃축제가 이곳에서 열린다. 남쪽지역인 운봉에서 눈꽃축제라니 다소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지리산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에, 1월 평균 적설량이 1m 가까이 된다고 하니, 강원도의 여느 눈꽃축제에 뒤지지 않을 절경이 펼쳐질 만도 하다.

봄엔 붉은 철쭉의 화원에서, 여름이면形形色색 허브의 신세계로, 그리고 겨울이면 새하얀 눈꽃의 향연으로. 1년 내내 자연의 선물로 가득한 이곳 바래봉이야말로 운봉의 손님들을 맞이하는 주인장이 될 만하지 않을까. 축제에 맞추어 몇 번이고 다시 오고 싶어진다.

3. 운봉읍

누렇게 색이 바랜 상점들 간판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진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이 발소나 금은방, 다방들을 지나쳐 걷고 있자니 70년대의 거리로 시간여행을 온 듯하다. ‘구름이 서려있는 봉우리’를 뜻하여 운봉이라 하지만, 구름 대신 옛 정취가 길 곳곳에 가득하다. 특히 운봉 사거리의 한켠에 서있는 낡은 한옥이 눈에 띄는데, 한때 아흔 칸이나 되는 대저택이었다고 한다. 일제시대 호남을 대표하는 만석꾼으로 ‘운봉 박부자’라고도 불리었던 박희옥. 그의 집이 바로 이곳이었다. 박희옥의 먼 친척뻘인 마을 어르신을 통해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우리나라 풍토가 천석이면 논이 천 마지기면 천석군이라고 임금 군자를 붙여준다고. 천석도 엄청난 부인데 만석이란 것은 전라도에 하나 정도 있는 엄청난 부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학교 때보면 그때 세당(세단) 승용차가 있었다고. 그리고 짐차도 있었고. 또 남한서 전화를 오 번이라고 전화도 달고...

이렇듯 대단한 부자였던 박희옥. 운봉뿐만 아니라 인월, 아영, 산내, 이백 등지에 수만석의 땅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 더불어 박희옥은 연회 때마다 판소리의 명창들을 초대하여 소리를 즐기며 재정적으로도 후원해주었다고 하니, 운봉이 동편제와 판소리의 고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박희옥과 같은 운봉 부자들의 역할도 상당했으리라 짐작된다.

그 때는 먹고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소리문화가 말하자면 돈 있는 사람들이 풍류생활로 술먹고 오라고해서 즐기는데, 없는 사람은 그때 막걸리 한 잔 먹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근데 기생들 옷 해주고 예쁘게 앉혀놓고 할 만한 것은 경제력이 없으면 안되는데...

하지만 천하의 만석꾼 박희옥도 해방 후 급격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여 이젠 낡은 한옥 두 채만이 쓸쓸하게 남아있다.

4. 서림공원

서림공원에 들어오면 마주보고 서있는 석장승들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마을의 바깥으로부터 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세웠던 석장승들이, 이제는 버선발로 마중 나온 주인어른 처럼 방문객들을 반기는 듯이 보인다. 두 석장승 모두 병거지를 쓴 모습이 금슬 좋고 인심 많은 노부부 같기도 하다.

석장승 안쪽으로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비석들이 늘어서있다. 약 10여 년 전 운봉에 흩어져 있던 비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한다. 그중 모서리가 깨진 채 서있는 커다란 비석에 유독 시선이 가는데, 아래엔 박봉양 일목장군비라고 쓰여있다. 하지만 실제 비석에 새겨진 비문은 ‘갑오토비 사적비’이다.

일목, 즉 애꾸눈이었던 박봉양은 당시 운봉 지역의 세력가로 유명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을 뒤흔들고 전라도 대부분의 지방에서 집강소가 설치되던 그때 박봉양은 운봉에서 민보군을 조직하여 이를 막아선다.

운봉과 접해있던 남원은 당시 농민혁명의 핵심인물이었던 김개남 장군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전국적으로 혁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지역이었다. 특히 김개남 장군의 부대는 농민군의 가장 날카로운 힘을 가진 최정예 부대로 알려져 있었다.

김개남 장군의 부대가 남원을 떠나 서울로 진출하고 있던 때, 남아있던 남원의 농민군 역시 운봉을 넘어 경남 서부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함양과 대구지역의 관군 지원을 등에 업은 운봉의 박봉양 세력에 번번이 가로막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남원의 농민군은 여러 차례 패배하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박봉양이 이끄는 민보군에게 남원성을 빼앗기고 수천 명의 농민군이 죽게 된다. 농민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오지영은 그때의 상황을 <동학사>에서 이렇게 기록한다.

갑오 12월부터는 조선 남방은 관병과 일병의 천지가 되고 말았다. 동리마다 살기가 충천하고 유혈이 가득하였다. 동학군들이 관병, 일병, 수성군, 민포군에게 당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다. 그중에서 가장 참혹한 곳이 호남이었고, 충청도가 그 다음이며, 또한 경상, 강원, 경기, 황해 등 여러 도에서도 피해가 극심했다. 전후 피해자를 계산하면 무릇 3~40만에 달하였다. 동학군의 재산은 모두 관리의 것이 되었고 가옥 등 물건은 죄다 불 속에 던져져 민보군의 실상은 차마 다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었다.

갑오토비사적비. 그 이름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역사의 내막을 들여다보니 이렇듯 수많은 농민들의 죽음을 뚫고 서있는 기념비로 느껴진다. 비석의 깨어진 모서리엔 가난했던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가 담겨져 있었다.

5. 신기마을

초봉. 신기마을 앞 커다란 바위에 알 수 없는 한자가 새겨져있다. 풀을 뜻하는 ‘초’자에, 봉우리를 뜻하는 ‘봉’자를 합하여 ‘초봉’이다. 새겨진 흔적으로 봐서는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 뜻을 유추하기가 쉽지는 않다. 풀을 쌓은 봉우리를 뜻하는 걸까? 아니면 풀이 자라는 바위라는 걸까?

사실 이 바위의 원래 이름은 구암, 즉 거북바위였다. 마을 어르신들의 표현대로라면 운봉 부자들이 살던 해방 직후까지 이 바위를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 시절 마을 주민들이 손수 바위의 이름을 ‘초봉’이라 바꾸고 이를 바위에 새겨 넣었다. 풍수 지리적으로 이곳 신기마을이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기에, 소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초봉’, 즉 ‘풀 더미’가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이 초봉이라는 글자에 새겨져있는 셈이다.

운봉 부자들이 사라지면서 거북바위가 초봉으로 바뀌었듯이, 이곳 신기마을 앞에 있던 운악정도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운악정은 운봉의 대표적인 만석꾼이었던 박씨집안의 별장이었는데, 박씨 집안의 부자들은 이곳에서 유명한 소리꾼들을 모아 유흥을 즐겼다고 한다. 2층의 커다란 한옥으로 지어진 운악정은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사랑채가 있었고, 그 앞에서 뱃놀이도 즐겼다고 하니, 아마 굉장한 규모의 별장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씨 집안의 부자들은 유흥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소리꾼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기거하며 수련할 수 있도록 장려했는데, 이곳을 거친 유명한 소리꾼들이 제법 많을 정도였다.

70년대의 초봉과 일제시대의 운악정. 시대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이곳 신기마을에 공존하고 있는 게 흥미롭다. 이렇듯 시대마다의 이야기들이 쌓여 겹겹의 지층을 이루는 것이 결국 우리네 역사가 아닐까 싶다.

6. 랫천

그늘 한 뼘 없는 들판 위에 끝을 알 수 없는 뚝방길이 펼쳐져 있다. 한여름의 피약별 아래라면 덥고 힘든 길이겠고, 모자가 없다면 더욱 당혹스러운 길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길이 마냥 지루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건, 지리산의 장대한 능선과 운봉고원의 넓은 들녘,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시냇물과 더불어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혼자 건더라도, 외롭지 않게 길동무가 되어주는 이 시냇물은 운봉의 젖줄인 랫천이다. 백두대간의 물들이 모여 운봉고원을 적시며 낙동강으로 흐르는, 지리산의 아름다운 물길 중의 하나인 랫천.

지도상으로는 광천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곳 주민들 대부분은 랫천이라고 부른다. 조선후기에 발간된 <호남읍지>에 “광천은 운봉현 서쪽에서 발원하고 황산을 지나 산내를 거쳐 함양의 암천으로 흘러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랫천 물길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광천은 랫천의 옛 이름이 아닐까 한다.

길을 걷고 있으면, 랫천을 따라 자리 잡은 운봉의 여러 마을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보니 랫천은 이곳 운봉 일대를 풍요롭게 일구는 생명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는 비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백두대간의 맑은 물을 머금은 랫천은 다양한 동식물의 안식처가 될 테니 말이다.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해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수달의 중요한 서식지 중 한 곳이 이곳 랫천이다. 랫천 주변 곳곳에서 수달의 배설물과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고, 간간히 카메라에 찍힌 수달의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평화롭게 뛰노는 수달 가족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길을 걸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랫천을 의식하게 된다.

이곳에서 수달을 만날 수 있을까?

7. 비전마을

비전마을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구석구석 보아야할 명소들이 있다. 황산대첩비와 송흥록 명창의 생가, 그리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하마정까지. 비전마을은 말 그대로 대첩비가 있는 마을이니,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러했듯 먼저 황산대첩비로 걸음을 옮겨본다.

삼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더욱 고요하게 느껴지는 황산대첩비지. 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정면으로 황산대첩비의 비각이 서있지만 이는 해방 이후 새롭게 복원된 비각이다. 원래의 비각은 그 우측에 파비각이란 이름으로 조각난 채 누워있다.

황산대첩비는 고려 말 왜구의 침략에 맞서 운봉의 황산일대에서 이성계가 대승을 거둔 싸움을 기념하는 비각이다. 이 황산대첩을 계기로 이성계가 정치적으로 급부상하게 되고 결국 조선을 개국하기에 이르렀으니, 대첩비는 조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러하기에 일제가 이를 가만히 놔두었을 리 없었을 것이고, 대첩비는 해방 직전 조선총독부에 의해 파괴되고 그 비문은 식별할 수 없도록 정으로 쪼이기까지 한다. 이와 더불어 비각과 함께 있던 어휘각의 비문까지도 정으로 훼손되고 만다.

파괴되어 조각난 채 누워있는 파비각과 훼손된 어휘각의 비문을 꼼꼼히 살펴본다. 그리고 쓸쓸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 채 송흥록 명창의 생가로 향한다.

이곳 비전마을은 동편제의 시조인 가왕 송흥록 명창이 태어난 곳이다. 한양으로 불려가 왕 앞에서 소리를 할 정도로 송흥록은 전국적인 판소리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의 웅장하고 묵직한 소리는 순창, 구례 등 섬진강 동쪽지역으로 퍼져, 후에 동편제라는 판소리의 유파로 자리잡게 된다. 송흥록은 당시 가왕이란 칭호까지 받았으니, 요즘 식으로 따지면 조용필 이상의 인기를 누렸던 셈이다.

판소리와 황산대첩비.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가 이곳 비전마을에 공존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역사의 중요한 상징이었던 황산대첩비였기에, 당시 이 근방을 지나던 사대부들은 반드시 이곳에 들러서 대첩비에 참배를 했다. 이렇듯 타지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유흥문화가 생기고, 그래서 판소리도 발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실제로 비전마을의 5리 전엔 하마비가 세워져있어 황산대첩비가 가까이 있음을 알렸다고 하는데, 말을 탄 관리나 양반들은 반드시 말에서 내려서 예의를 차렸고, 그 근방에 있던 하마정에서 쉬었다 가곤 했다. 더불어 함양과 남원을 오가던 장꾼들을 상대하는 주막들도 하마정 근처에 많았다고 하여 열년 열두 달 장구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비록 오늘날엔 하마정의 모습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마을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마을 앞 람천의 건너편에 하마정이 있었다고 한다.

다양한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비전마을을 뒤로 한 채 다시 길을 걷는다.

8. 군화마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조선시대 10대 대로 중 하나였던 '통영별로'에 속해있던 길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그려져 있는 이 길, 통영에서 진주, 산청을 거쳐 이곳 운봉으로 이어지고, 다시 인월과 전주를 거쳐 올라가 한양으로 향해있던 길이다. 조선시대 과거를 보기 위해 선비들이 걸었던 그 길, 지금은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고속도로와 국도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그 길을 걷고 있다. 비록 통영별로는 사라졌지만, 그 길의 흔적은 아직 남아있다. 이 흔적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이미 사라진 것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마을 어르신들에 의하면, 이곳 군화마을 앞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서낭당이란 서낭신, 즉 마을의 수호신을 모셔놓은 곳을 말하는데, 새마을운동 이전엔 농촌마을의 입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주로 커다란 서낭나무나 장승 앞에 돌무덤을 쌓아놓고, 이곳을 지날 때마다 돌을 엮고 절을 하거나 침을 뱉으며 길운을 빌었다.

군화마을 앞에는 커다란 팽나무가 하늘을 가릴 듯 줄기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그 앞에 집채만한 돌무덤이 있었다. 인월장으로 가는 마을 사람들은 이 서낭당 돌무덤에 돌이나 동전을 던지면서 하루의 복을 빌었을 것이고, 철없는 아이들은 몰래 돌무덤을 뒤져 동전을 찾아내 그걸로 제기를 만들어 놀았을 것이다.

하지만 60년대에 운봉지역을 휩쓴 대홍수와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인 '미신타파' 운동으로 전국의 많은 서낭당이 사라졌을 때 이곳의 서낭당도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의 군화마을 역시 대홍수와 새마을운동 이후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다. 이 때문에 '군인들이 새롭게 지은 마을에 화수리 사람들이 산다'는 뜻에서 군화마을이라고 불린다.

비록 서낭당과 옛 마을은 이미 사라져 볼 수 없지만, 길만은 옛길 그대로다. 시간이 흐르면 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사라지겠지만, 길만은 쉽게 변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본다. 옛길을 걸으며 사라진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잠시나마 위로 받는다.

9. 자연휴양림

눈앞에 펼쳐진 울창한 원시림이 당장이라도 마음 깊이 쌓여있는 묵은 때를 벗겨줄 것만 같다. 잣나무와 소나무로 가득한 이곳 자연휴양림은 지리산 서북능선의 끝자락을 지키고 서있는 덕두봉의 계곡에 위치한다.

덕두봉은 지리산에서 아침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 할 정도로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데, 정상에 올라서면 천왕봉을 비롯해 촛대봉, 토끼봉, 반야봉, 노고단 등 지리산을 대표하는 주요 봉우리들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산꾼들 사이에서 ‘지리산 태극종주’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곳 덕두봉에서 시작하는 지리산의 서북능선과 주능선, 그리고 동부능선으로 이어지는 종주 코스가 태극무늬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험난한 지리산 태극종주의 첫 봉우리를 이곳 덕두봉에서 시작하기도 한다.

또한 덕두봉 골짜기엔 잣나무가 많다고 하는데, 이곳의 잣이 인근마을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다. 예부터 우리나라 잣은 해외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했는데, 명나라 때의 의학서 <본초강목>에는 ‘신라잣’이 약효가 가장 좋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다. 그 후로도 우리 잣은 ‘해동잣’이라고 불리며, 고려인삼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 특산품으로 중국과 서역까지 수출되었다.

고소한 잣을 따며 동심으로 돌아가거나, 상쾌한 삼림욕을 즐기며 며칠 쉬거나, 아니면 단단히 마음먹고 ‘지리산 태극종주에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길 위에 오른다.